

韓·佛 방산위원회 및 韓·伊 방산협의회 열려

실질적 방산협력관계 협의 및 주요 방산업체 시찰



6월 24일 韓·伊 제2차 방산협의회에서 방산업체간 사업분야 모색 및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 회장을 단장으로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이탈리아를 방문하여 韓·佛 방산위원회 제8차 회의 및 韓·伊 방산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요 방산업체를 시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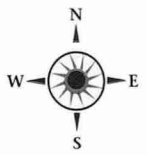
이번 방문에는 9개 방산업체 대표 15명과 국방부 획득본부 연구개발관 일행 3명이 참가하였다.

韓·佛 방산위원회는 '92년 이래 방진회와 프랑스항공 우주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 체계와 한국 국방 태세를 소개하였으며, 프랑스측은 업체간 방산관계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韓·伊 방산협의회는 금년 1월 서울에서 1차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탈리아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프랑스 방문과 연계하여 2차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방문에서 양국은 한국의 정치역량, 산업능력, 노동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보다 질적인 협력관계 설정을 역설하였으며 정부 및 업체 상호 노력을 촉구하였다.

회의와 함께 한국 방문단은 프랑스 DASSAULT AVIATION과 GIAT INDUSTRIES 및 이탈리아 GLOBALSTAR, ALENIA AEROSPAZIO(EFA), ALENIA DIFESA, FIAR, AGUSTA사 등을 시찰하였다.



'99 전반기 국방개혁추진 결과 소개

총 58개 과제중 38개 완료

지난 해가 국방개혁의 「틀」을 짜고 우선적으로 개선할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 결과, 미래 한국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설계하고 범군적인 개혁의 붐을 조성한 해였다면, 금년은 국방개혁을 가속화시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해」로서, 전반기 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 과제는 일부 완료된 과제의 통합과 새롭게 추가된 과제를 포함하여 총 58개이며, 6월말 기준으로 38개 과제를 완료함으로써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금년에 새로 추가된 주요 과제로는 기존의 병영문화 전반에 일대혁신을 기하기 위한 「신 병영문화 창달」과 하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등이다.

또한 21세기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정보기술 발달에 의한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차원의 군사태세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군사혁신기획단」을 4월 15일부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 개혁 추진 실적

*군구조 개편

상부조직 및 기능은 합동군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조정으로 국방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시켰으며, 방위력개선 관련 국방부, 합참 기능을 조정하였고, 국직기관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국방부 본부조직은 우선 1단계('99. 1. 2)로 방위력개선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획득실을 신설하였으며, 기획, 예산, 재정기능의 일원화와 유사/중복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였다.

2단계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인사국과 복지군국을 인사복지국으로 추가 통합하고, 분석평가관실의 기능을 조정하여 4개국 14개과를 감축,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도 지난 1월 2일부로 완료하여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인력 509명을 감축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조직을 간소화시켰다.

육군 지휘 및 부대구조 조정은 현행 한·미 연합작전체제하 육군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휘계층의 단순화와 주요 전투부대의 임무, 기능, 운용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작전지휘의 신속성과 전투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 아전군사령부 해체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준비와 이의 선행과제인 전방군단의 편성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고, 제 기능 및 편성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제 기능 및 편성의 검증작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창설된 국군 수송사령부는 전시 수송지원 계획 및 통합 수송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국내·외 수송지원 업무의 통합 기획·조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4월 20일 창설이후 제병과 및 기능이 통합된 공세 주축전력으로 운용중에 있고, 6월 1일 창설된 화생방 방호사령부도 도시지역 독가스 테러에 대비한 신속대응부대로서의 임무수행과 군·관·민 화생방 방호를 위한 통합작전기구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군구조 개편이 '03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 4,700여명과 예산 5,0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방위력 개선**

방위력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은 합리적 위협판단과 가용한 국방재원을 고려하여 재정립하였고,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 군사력 건설 방향을 설정하였다.

획득개발 제도 및 절차 개선문제는 획득업무를 사업별 전담관리책임제로 전환하여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의사결정체계의 단순화(8개 → 3개)와 절차를 단축(38단계 → 24단계)하였고, 획득관련 제 규정을 정비(17개 → 1개)하였다.

방위산업분야는 중복투자 해소와 방산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방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산의 전문화·계열화 재정립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반을 강화시켰다.

세부 내용은 주요 무기 생산의 전담체제화로 중복투자를 해소하였고,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와 진입장벽을 완화시켰으며, 방산기반 강화를 위해 방산특별조치

법을 개정(99.5)하였다.

■ 후반기 개혁추진 중점

군 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작사 창설 준비와 군단중심 작전수행체제를 보강하고, 2군예하 동원사단 해체에 따른 검토와 2군 통신여단 창설 준비 등 기 계획된 과제의 시행과 부대 개편 안에 대한 검증, 개편완료 부대에 대한 운영실태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과제인 신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구체적인 현장적용 및 실천 프로그램/모델의 연구와 세부 추진계획을 발전시키고, 군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예하사관 육성과 하사관의 사기 진작, 그리고 하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연구 등 실질적이고 내면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제고토록 한다.

특히 21세기 미래 안보환경의 획기적 변화와 국가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에 의한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 및 정책 개발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 정예군」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화 국내 첫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서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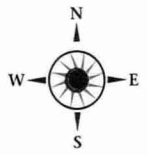
ISO 9000 시리즈 요건에 군수품 특수성 적용

(주)한화 대전공장이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의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시행 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로부터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국방품질관리소는 6월 29일 유희모 소장을 비롯해 (주)한화 이순종사장과 국방분야 관계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주)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인증서 수

여식을 개최하였다.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국방품질관리소가 군수업체의 군수품 생산체제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평가해 관련 국방규격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 공인하는 제도로, ISO 9000시리즈 요건을 근간으로 군수분야의 특수성과 군 요구조건을 추가해 군수업체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주)한화 대전공장은 그 동안 국방품질관리소로부터 품질시스템을 심사받았으

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 군수물자를 수출시 상대국으로부터 검사를 생략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유흥모 국방품질관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증제도는 군수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품질보증능력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 품질보증활동의 범위를 축소해 정부의 대민행정 규제혁파에 부응하면서 군수업체의 수준을 향상시켜 군수품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수업체들은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F-16 사고 손해배상 협상 결과

PW-229엔진 최신형 2대와 부품 제공 받기로

국방

부는 '97년 8~9월 KF-16 2대의 추락손실과 관련하여 美 P&W사와 협상한 결과 "KF-16 항공기 지원체계향상"을 위하여, P&W사가 PW-229 엔진 최신형 2대(1,000만달러)를 제공하고, 부품제공의 좋은 관계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97년 8월과 9월, KF-16 2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국방부는 '98년 1월 연료도관 결함으로 인한 엔진정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문일섭 획득실장을 위원장으로 KF-16 손해배상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7월 24일부터 11개월간 9차 협상을 수행하여 '99년 6월 30일 협상을 체결하였다.

사고기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실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번 협상에서 "신형엔진 2대"를 현물로 받은 것은 "국익 보호"는 물론 우리의 협상 능력을 발휘한 쾌거로 큰 성과이다.

실제로 F-16 항공기는 전세계에서 200대 이상이 추락하였고, '97년 5월까지 사고건수 중 약 107건이 제작상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또한 이번 협상은 FMS 계약의 "면책조항"을 극복한 사

례로 해외구매의 약 60%를 FMS 계약으로 구입하는 국방부로서는 FMS 계약에 대한 문제해결에 소정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KF-16 사고 이후 국방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힌 것이 협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문일섭 획득실장은 "국민과 국회, 언론이 납득하고, 국방부의 명분을 위해, 실물엔진 2대가 포함된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는 협상 지침을 세워 국방부의 대표로서 "대의적"

합의 공식보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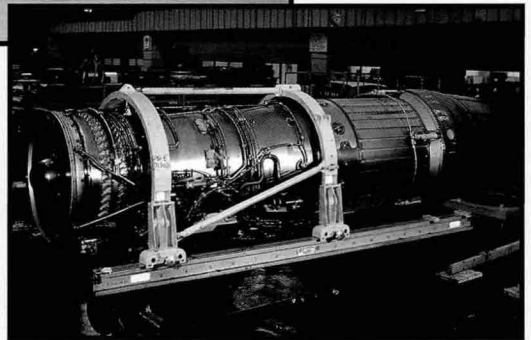
국방부는 미국 엔진제작사인 Pratt & Whitney사와 1997년의 KF-16 2대의 항공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공군은 신형엔진 2대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공군은 P & W사와 장래의 부품제공에 있어서, 더욱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협정은 현재 공군의 KF-16 항공기들의 지원체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협정으로 국방부는 1997년의 사고에 대하여 P & W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KF-16기와 이에 장착되는 F100-PW-229 엔진



자세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IMF 극복을 위해 최소 예산(총 630만원)을 사용하였다.

특히 계급보다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파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위원장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지휘함으로써,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관리관 박선기)에서는 KF-16 사고에 대한 법적검토에서, “협상”으로 할 것을 자문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게 하였다.

국방부와 공군은 1987년 이래 국제항공법세미나를 통하여, 항공법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왔으며, 이번 KF-16 협상에서, 이러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협상 중 P&W사와 극단적인 충돌도 많았지만, P&W사는

협상타결을 환영하며, 장차 한국에 공급하는 제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F-16 전투기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99년도 SCM 분과위원회 개최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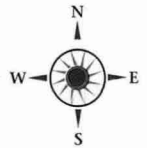
금년 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3개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회의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국간 방산 및 군수분야 협력 및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금년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국방부 획득실장을 대표로 국제사업관 및 군수관리관이, 미

국측에서는 국방부 안보협력본부(DSCA) 아·태지역 국장, 국제사업 부차관이 각각 위원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보협력 위원회(SCC)에서는 문일섭(文一燮) 획득실장과 로스(Mr. Edward W. Ross) 미국 안보협력본부 아·태 지역 국장이 공동 대표가 되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로 장비 도입시 품질보증 개선방안, 나이키 유도무기체계 및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전자시험장 건설과 관련한 미국의 기술자료 지원 협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원장비의 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방산·기술협력 위원회(DTICC)에서는 강행중(姜幸中) 국제사업관과 볼크만(Mr. Alfred G. Volkman) 美 국방부 국제사업담당 부차관이 공동 대표가 되어 삼성항공과 미국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중인 초음속 고등훈련기(KTX-2)의 美 공군 훈련기 채택 검토 요청과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시 한국의 방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무기체계의 비용분석 방법, 그리고 기타 한·미간 기술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군수협력 위원회(LCC)에서는 군수관리관 이성우(李性佑) 육군 소장과 미국의 국제 사업담당 부차관(Mr. Alfred G. Volkman)이 공동대표가 되어 한국의 전시지원과 미국의 안보지원을 연계한 상호이익 증대방안, 주한미군의 전·평시 보급·정비 업무에 국내 업체의 참여증대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 향상 방안, 상호 군수지원 체제 보완 및 탄약 지원 노력의 통합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국방부는 금번 회의를 통하여 한·미간 연합방위 태세를 증진시키고 양국간의 방산·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9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열려

기체/발사대 및 체계 분야 연구결과 발표

국방

과학연구소는 7월 8일 제3세계개발본부 주최로 제9차 유도무기(기체/발사대 및 체계 분야) 학술대회를 군 및 산·학·연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유도무기 기체/발사대 및 체계 분야 학술 대회는 '93년도 및 '96년도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7개 분과에서 총 8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환영사에서 최동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최근 세계도처의 국지전에서 보여준 최첨단 유도무기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의 국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고도정밀 유도무기의 중요성과 국내 개발 능력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인 조태환 본부장은 대회를 통해 "기술 집약적 고도정밀 유도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구축에 군·산·학·연간 기술정보 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와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학계를 대표한 대한기계학회장 이종원 교수는 축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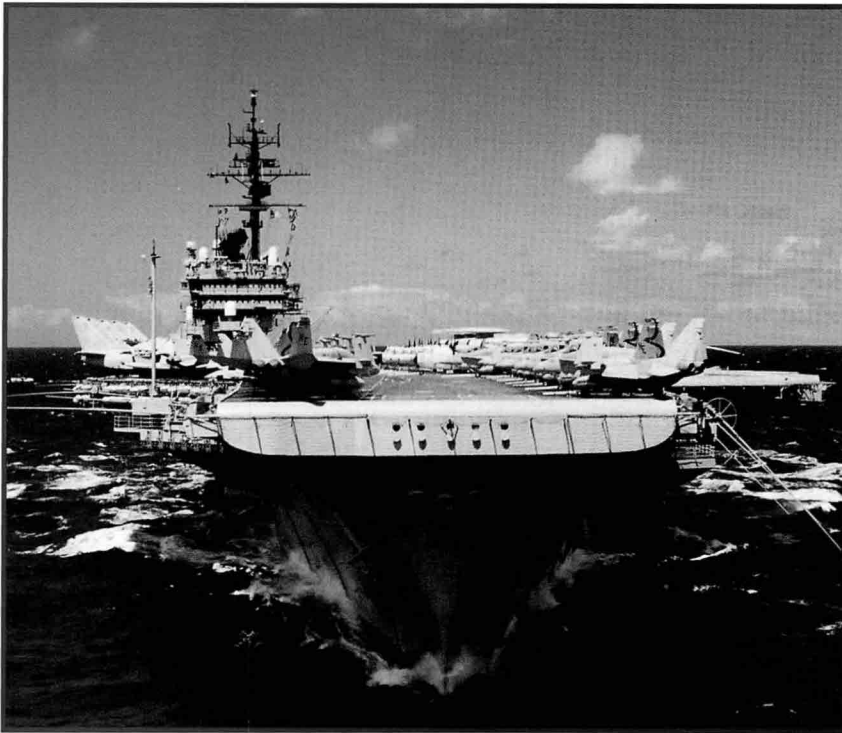
통해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첨단정밀무기 생산능력 제고가 필요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이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하였고, 산업계를 대표한 LG 정밀 송재인 사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향후 유도무기 분야 기술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국내 관련업계도 기술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는 축사를 하였다.

또한, 유도무기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전산유체공학 회장인 장근식교수가 「CFD를 이용한 유도비행체의 공력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美 컨스텔레이션 항모전단 부산 방문

두번째 키티호크급으로 배수량 88,000톤, 75대 전투기 보유



두번째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으로서 뉴욕 해군 조선소에서 건조된 컨스텔레이션호는 1961년 10월 27일 美 해군에 취역했으며 배수량은 약 88,000톤으로, 5,500명 이상의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고 F/A-18C Hornet, E-2C Hawkeye, EA-6B Prowler, F-14D Super Tomcat, S-3B Viking, C-2A Greyhound, SH-60F Seahawk 등 75대의 전투 및 지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2척의 유도 미사일

美 해군 항공모함 컨스텔레이션과 이를 지원하는 함정들로 구성된 전단이 7월 11일부터 5일동안 부산항을 방문하였다.

순양함과 2척의 잠수함을 포함한 컨스텔레이션 전단은 6개월간의 정기적인 전개 일정에 따라 서태평양과 아라비아 만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Constellation의 제원

Builder	New York Naval Shipyard	Height from keel to mast.....	17 stories
Keel laid.....	Sept. 14, 1957	Compartments and spaces	More than 3,000
Launched	Oct. 8, 1961	Anchors	2(each weighs 30 tons)
Commissioned	Oct. 27, 1961	Weight of anchor chain links.....	365 pounds each
Total Cost	\$400 million in 1961	Displacement	88,000tons
Propulsion	Four steam turbine engines	Propellers.....	Four, each 21ft. in diameter and 44,000lbs.
Speed	In excess of 30 knots(35mph)	Weight of rudders	200,000 pounds each
Length of flight deck	1,079 feet	Accommodations	more than 5,000 people
Width of flight deck	270 feet	Daily capacity of water distilling plants.....	400,000gallons
Area of flight deck	4.1 acres	Meals served per day.....	More than 18,000